

## 부활 제4주일 (생명 주일 · 성소 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2, 14ㄱ, 36~41

**화답송** 시편 23(22), 1~3ㄱ, 3ㄴㄷ~4, 5, 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2.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 2, 20ㄴ~25

**복음환호송** 요한 10, 14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 1~1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그림 : 김범은티 바오로(부산가톨릭미술인회)

5월의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생명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 주일은 특별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 제54차 성소주일 행사

일시/ 5.7(일) 10:00~16:00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주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 8)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7회 생명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담화문 바로보기

## 2017년 성가정 축복미사

일시. 5월 12일(금) 19:30

장소. 금정성당

※ 참석자 전원 선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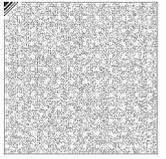
이 주간의 축일

♣ 7일 : 도미시아노, 로사 베네리니, 리오타드, 베드로, 빌라노, 세레노, 세레니코,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로스첼리, 요한, 유베날리스, 콰드라토, 프레데리코, 플라비오, 플라치도





# 성소는 자발적으로



오늘은 ‘거룩한 부르심’을 뜻하는 성소(聖召) 주일이다.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이다. 사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느님의 부르심과 무관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나 혼자 결심하고 계획을 짜서,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시각을 돌린다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미사 해설하고, 성모회에서 봉사하고,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를 하는 것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하

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성소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소 주일은 수도자와 성직자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오롯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집중하는 날이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성소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도록 함께 기도하고 다독여 주는 날이다.

이러한 성소는 기도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자발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요나 주위의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성소를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곤란하다.

신학교에서 성소의 길을 걷다가 뒤늦게 그 길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전환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착각일 뿐

이다. 그런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르헤 마리오(현 프란치스코 교황)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가족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아버지는 만족하였고 어머니는 서운해 하였다고 한다. 제일 기뻐하고 감격한 사람은 할머니였다고 한다. “잘했다.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복 받은 것이지.” 하면서 조언도 해주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집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네 생각이 바뀐다 해도 아무도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할머니의 넓고 자비로운 마음이 어린 호르헤 마리오에게 깊이 각인되어 오늘날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평화의 사도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전 동기 유스티노 신부  
우동성당 주임



## 지금까지 집 한 칸

발코니 난간에 새가 집을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등지에 앉아  
하염없이 비 오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 무엇에도 간섭받지 않을  
이 등지 한 칸 지니려고  
새는 그토록 많은 날  
쉽 없이 나뭇가지를 물어 날랐나 봅니다.  
하고 보니 사람의 한 생도  
새의 한 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싶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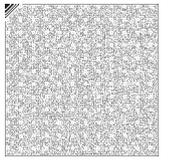
5.8(월)~9(화)  
전동기 신부(우동성당 주임)  
5.10(수)~13(토)  
강호성 신부(월평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5.9(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무거성당 청년회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5.8(월) 행복한 책임기  
출연 : 박현주(북갈렘니스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5.12(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하늘바라기



박 주 영 쉐레스티노

어쩌면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때론 성경을 읽을 때, 때론 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보곤 합니다. 어느 날 '중3' 인 딸이 "아빠, 글쓰기는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기사를 쓰거나 고치는 일이라 쉽게 대답할 수 있으려니 했는데 막상 닥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끼는 대로 네 생각대로 쓰면 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리있게 하면 돼"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애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까?' 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 접하는 기도문을 갖고 설명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음, 그레. 서론, 본론, 결론이 가장 기본

적 골격이니... 성호경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께서 서론, '성자' 께서는 본론, '성령' 께서는 결론인 셈이지요.

성부께서는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그 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수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돌보시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사업' 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론은 주제의 시작을 알리며 관심을 끌게 합니다. 본론은 전체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며 읽는 이를 끌어들이는 일체가 되게 합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은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하나를 이뤄야 좋은 글이 됩

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몸이시죠. '삼위일체' 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미사 시간에 따라 사도신경을 '콘스탄티노플 신경' 으로 바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어로 말은 못해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론, 본론, 결론' 으로 골격을 짜고 외웠더니 됐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 하느님의 외아들 /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런데 "이건 지식인데..." 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상을 더하고, 고요히 머무름을 버무려야 하겠다' 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장 park21@chosun.com



## 본당 - 방주인가?

여러 본당 건물은 배 모양을 하고 있다. 구약의 방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선성당도 배 모양을 하고 있다. 마치 먼 바다를 헤쳐 건너온 방주가 봉래산 자락에 안착한 듯한 모양이다. 본당은 방주일까? 차고 넘치는 홍수वाद 같은 신앙의 위협들로부터 신앙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마른 땅까지 안전하게 옮겨놓는 것 그것이 본당의 역할일까?

본당에 젊은이들, 학생들이 잘 안 보인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한 개 지구의 본당이 연합을 해서 행사를 해도 옛날 한 본당 규모의 학생들 숫자보다 적게 모인다. 이를 놓고 사목자의 열성이나 신앙인 각 개인의 열심함의 정도를 논하면 안 된다. 예비신자 숫자의 감소, 냉담자의 증가, 주일미사 참석자 수의 감소 등도 같은 모양이다. 말하자면 본당은 세상의 물결들로부터 차단된 방주가 아니다. 오히려 파도의 숫자 만큼 흔들리고, 바람의 모습처럼 출렁이는 풍랑 속의 배(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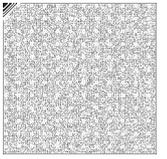
4, 37 참조)이다. 고용불안, 성적위주의 학교정책, 격화되는 빈부격차, 장시간 노동, 노령 인구의 증가, 여유 없는 삶 등등의 파도는 본당에 여과 없이 부딪힌다. 그리고 이런 파도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당에 와 있다. 그래서 단지 '더 열심히 살자' 는 옳은 해결책이 못 되는 것 같다.

교회가 세상의 윤리적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해 왔듯이 세상의 사회적 현상들이 만든 파고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없을까? 지금 맞고 있는 파도를 공부해서 다음에 올 파도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파도를 미리 조정할 수는 없을까?

대통령 선거날이 다가왔다.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좀 편한 물결을 누가 만들어 줄까? 지쳐있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본당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그런 관점으로 후보들을 쳐다본다. 선거날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출렁이는 작은 배에 앉아서....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 노인대학(어르신성경대학) 1년을 마치고

전 흥 일 스테파노



좌동성당은 부산교구 내에서도 신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노인대학이 없었다. 2015년 가을 본당에 새로 부임하신 주임 신부님이 노인사목을 실천하기 위해 '어르신성경대학'을 만들고 2016년 3월 5일 개학식을 가졌다.

전체 학생 수가 135명으로 그중 남학생 수가 35명인데 이는 우리교구 내 70여 개 노인대학 중 전체 및 남학생 수가 제일 많다.

노인대학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믿음과 친교의 마당을 넓혀 가리라 믿고 망설임 없이 세분의 형제를 권유하여 같이 등록하였다.

교과 과정은 부산교구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은빛여정(1학기 로마서와 코린토서, 2학기 요한 서간과 묵시록) 강의를 듣고 이어서 공부한 성경구절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각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듣다보면 세월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신앙의 연륜을 느낄 수 있어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다.

오전 시간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모든 본당과 같은 수업을 했으며, 오후는 각 본당의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건강강좌, 야외학습과 웃음치료 등의 수업이었다.

1년을 마치고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니 본당 행사 때 학장, 부학장과 남학생 12명이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의 노래에 맞추어 노란 티셔츠를 입고 붉은 나비넥타이를 매고 서툰 줌바 댄스를 추었지만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교구청에 계실 때 노인사목 계

획을 입안해보셨던 주임 신부님의 경험, 강사진은 노인대학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 수녀님, 봉사자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은퇴교사 그리고 신학교육기관을 수료한 분들로 구성되어 은혜롭게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본당의 재정 지원없이 제 단체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운영되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제 단체의 봉사자가 항상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었다.

노인대학을 통해서 정신 세계에는 늙음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늙은이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음, 베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심을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좌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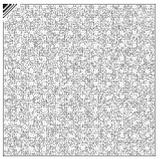
하느님께서 왜 저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처럼, 자녀들이 성적이 좋기를, 남편 사업 잘되기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 주시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참 불공평하신 듯합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저의 출신 본당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면 정말 은혜도 많이 받으니 천국은 따 논 단상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 저마다의 크기가 다른 빈 그릇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릇의 크기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그릇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복

을 많이 받기를,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 좋은 대학 가기를, 남편 사업 잘되기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비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만을 키워 주기를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자신의 그릇이 작음을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남의 큰 그릇 부러워하지 말고, 그릇만 키우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을 사랑과 회개와 용서로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그릇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

# 가톨릭센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프로젝트



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이날 비장애인들은 안대를 쓰고 영화를 관람하고, 토크콘서트

가톨릭센터(관장 : 김현일 예로니모)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7일(목) 소극장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프로젝트'를 주제로 67회 아름다운 세상

문화 공연을 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60여 명을 초대한 이날 공연은 '시소(SEE-SAW)'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하고, 재즈가수 겸 방송인 이동우 마르코 씨

행을 맡은 이주노동자 사목 차광준 신부 역시 눈을 가린 채 진행하는 등 공연 내내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가톨릭센터 관장 김현일 신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힘들게 삶을 극복한 이동우 씨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망의 눈을 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당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본당들 (4)

본당 복음화의 해를 지내며, 교구의 본당들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월 16일(일) 성모정원 축복식  
주임 : 방삼민 신부, 회장 : 강국태 F.하비에르



4월 22일(토) 가두선교  
주임 : 김주현 신부, 회장 : 이영숙 아녜스



4월 22일(토)~23일(일) 아나바다 행사  
주임 : 예정출 신부, 회장 : 박영표 루치오



4월 30일(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숲속 작은 음악회  
주임 : 임영민 신부, 회장 : 최상기 라파엘

## 금정성당, 착한의견의 어머니Pr. 2,000차 주회



4월 26일(수)  
주임 : 김근배 신부, 단장 : 최명숙 베로니카



4월 23일(일) 곡성으로 떠나는 전신자 기차여행 / 주임 : 박용조 신부, 회장 : 안영복 안드레아

## 반송성당,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4월 30일(일) 거제도 복자 윤봉문 요셉 성지 / 주임 : 강정웅 신부, 이창주 신부, 회장 : 정원모 대건안드레아

가톨릭신문 청년 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야벳 14, 20

안팎으로 힘든 이 시기, 교회의 반석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곳곳이 걸어간 '사도 베드로'의 삶은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 짜. 5/12(금) 20:00, 13(토)~14(일) 16:00  
장 소. 남천동 푸른나무교육관  
가 격. 2만원(20인 이상 단체 및 가톨릭신문 구독자 15,000원)  
문 의. 1588-2155, (053)251-0720~1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부산)

· 5.12(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5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5.21(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본 당

가야성당 5월 성령치유대피정

· 5.9(화) 12:30~17:0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  
강사: 윤명기 신부(가야성당 주임), 이병주 신부  
(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010-6679-5345

부곡성당 은혜의 밤

· 5.22(월) 19:00 / 강사: 김완식 형제(수원교구)  
주제: 내가 왔나이다!(히브 10, 7)  
문의: 516-2356, 010-7258-2046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부산: 5.8(월)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5.8(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5.10(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이주홍 신부(울산), 김정원 신부(부산)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빈민사목 후원미사

· 5.8(월) 10:0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둘레 나눔가게

의류, 운동화, 수건, 치약, 샴푸, 린스, 가방 등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울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5.10(수) 14:00 · 복산성당 소성전  
지도: 이주홍 신부 / 문의: (052)201-6509

군중후원회 미사

울산: 5.12(금) 10:00 옥동성당  
주례: 최혁 신부(3호선비행단 토성대성당)  
부산: 5.18(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5.8(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87년 민주항쟁과 2017년 대한민국 - 미완의  
항쟁을 넘어 / 강사: 고희석(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  
운동부산본부 사무국장, 영화 변호인 국밥집 아들)  
문의: 465-9508 / 무료강의와 미사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5.12(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751-8693 / 10:30부터 미사 수화 공부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5.16(화) 14:00 / 지도: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010-8879-2376(회장)

한국콜핑협회 분기별 미사

· 5.20(토) 17:00 · 영주동 한국콜핑협회 2층 강당  
회장: 전철우 / 문의: 010-3445-1320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성지순례 관계로 없음  
울산: 5.27(토) 10:00 옥동성당  
문의: 441-7729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5.11(목) 11:00 · 하단성당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울산대리구평형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5.13(토) 09:00 / 문의: (052)201-6505  
· 복산성당~병영순교성지성당  
대상: 울산대리구 내 본당 신자들

부산ME 소개모임

· 5.15(월) 20:00 · 남천성당  
347차 ME 주말: 5.26(금)~28(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총동문) 행사

· 5.21(일) 14:00 · 동래성당  
주제: 성지(聖地) 이야기 / 대상: 신학원 졸업생  
내용: 동래읍성순례길(복자와 함께) → 식사  
참가비: 1만원 / 문의: 462-0334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  
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469-7658  
조건: 외국어 회화 가능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5.8(월) 19:30 전포성당  
· 5.1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목주기도  
· 5.8(월) 11:00 (안수/중식제공)  
09:3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지하철 4번 출구  
09:30 동래역 09:40 온천장역  
- 교구 철야기도회  
· 5.12(금) 23:00~다음날 04:00  
강사: 김재중 형제(광주대교구)  
- 28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 3차  
(성모신심세미나)  
· 5.12(금) 15:00~14(일) 17:00  
회비: 10만원(교재비 8,0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급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5.11(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김대성 신부

성모성월 1일 무료피정 영성의 집

· 5.10(수), 17(수), 24(수), 31(수) 10:30~16:00  
09:3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지하철 4번 출구  
09:30 동래역 09:40 온천장역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18 좌동성당  
문의: (055)382-9465(영성의집)

성서교육원 두번째 묵상 <창세기편>

· 5.15~ 매주 월요일 10:00~12:00  
· 초량 성서교육원 3층 / 회비: 5만원  
대상: 60세~70세(성서가족, 일반신자)  
내용: 성서 안에서 노년기 준비를 위한 여정  
(강의, 그룹묵상) / 문의: 465-8162, 467-0761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  
(자세히), 제대일 / 활동: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462-1870(행정실)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993.5.10. 이병만(요셉) 신부님

부산교구 하 늘 공 원

† 미사: † 서버스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오전 11시 3층 경당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p><b>(주) 씨피여행사</b> 1.6/12 발칸 성지순례 13일 415만원 2.8/15 스페인 일주 포르투갈 루르드 14일 (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425만원) 3.9/18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247-5858 010-3837-6434</p>	<p><b>나가사키 성지순례</b> <b>대마도 · 일본</b> 010-8511-2442, 253-5887 <b>발해투어</b> www.valhae.co.kr 황 백 현(프란치스코)</p>	<p>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b>협성주단 · 한복</b>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b>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b> 정 경 우 (시몬) 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b>서울성형외과</b>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이퀴너스) http://seoulsps.co.kr <b>818-3131</b>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p>
<p><b>모니카주단 · 한복</b>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황 위 식(레오) 김 필 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2호(1층 4호문 중간)</p>	<p><b>국내 성지순례 버스</b> 리무진, 45인승, 25인승 성지순례 코스 상담 환영 <b>결혼식 웨딩 버스 대절</b> 미래고속관광(주) 055-333-6300, 010-9809-6300</p>	<p><b>혼례청</b>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경,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필사 입구)</p>	<p><b>삼진 커튼</b> 수입커튼, 완제품 커튼, 우드브라이트, 콤비브라이트 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p>	<p><b>가톨릭신문사</b> <b>크루즈 성지순례</b> 9/2(토)~9/15(금) 13박 14일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02-780-0832, www.cttour.org</p>

6 · 부활 제4주일(생명 주일 · 성소 주일)

♣ 12일 : 네레오, 도미니코, 디오니시오, 릭트루다, 모도알도, 아킬레오, 에우프로시오, 에텔하르드, 에피파니오, 제르마노, 쟈마, 테오도라, 판크라시오, 플라비아 도미틸라, 필립보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 금 14:00~15:30 / 문의 : 515-0030

**교육 · 모집 · 기타**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5.8(월) 10: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5.8(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5.9(화) 10:00 · 이기대성당  
· 5.10(수) 10:00 · 월평성당  
· 5.19(금) 10:00 · 사직대진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묵상 관광기도 피정과 미사**  
· 5.11(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 미사**  
· 5.11(목) 14:00 · 삼위일체 수녀원  
문의 : 463-7660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모임**  
· 5.11(목) 14:00 · 부산분원(오륜대)  
문의 : 010-2059-6260(백기태 신부)

**사랑의성모수녀회BPS 후원가족미사**  
5월 후원가족미사는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문의 : 756-3266, 010-5648-3266

**예수성심전교수도회와 함께하는 성심 기도회**  
주제 : 원죄 없으신 마리아 / 주례 : 김대선 신부  
· 5.12(금) 14:00~17:00(16:00 미사)  
· 성분도 은혜의집 / 문의 : (02)379-8091

**특특!바이블 청년피정(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 5.10(수) 19:00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  
· 바로로탈 서원 / 문의 : 010-2961-1611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소주일 <느낌이 있는 오후>**  
· 5.21(일) 13:00~17:00 / 문의 : 010-8300-3105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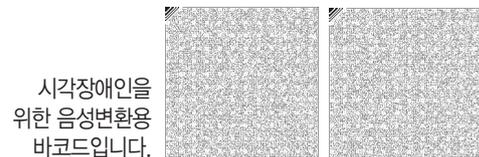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청소년, 성인, 부부(비신자 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 1급)  
상담 : 수~토 10:00~17:00 / 문의 : 581-3114

**아카데미<드림시니어스> 참여자 모집**  
내용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기인식 및 지역사회 이해(교육 수강 및 사회참여 활동)  
· 5월~8월 매주 수요일, 금요일 15:00~16:30  
개강 : 5.12(금) / 대상 : 만 55세 이상 누구나  
문의 : 241-2591(중구노인복지관 이승희)

**힘들실버타운 신관 입주자 모집**  
신관(20평형) 83세대 (망미동 소재)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식당, 병원 및 사우나 등 프로그램일 완비)  
구경하는 집(10:00~16:30)  
문의 : 758-6231, 010-5574-6231

**한티순교성지 피정**  
· 5.15, 6.19, 8.21, 9.18, 10.16  
지도 : 김형수 신부(한티피정의집 부관장)  
주제 : 쉬는 하루 / 문의 : (054)975-515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5.12~14, 6.9~11 시작 17:30, 5.15~19, 6.12~16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 5.26~28 시작 17:3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기본1,2과정) : 5.12~14 시작 15:0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삼성산성지 5월 무료치유대피정**  
· 5.12(금) 18:00~14(일) 15:00  
문의 : 010-7375-4600 / 09:00 서면 출발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5.16~19, 5.21~23, 5.26~29, 6.3~5, 6.8~10, 6.13~16 / 내용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문의 : (064)796-9181(성이시돌피정의집)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트레킹  
· 5.14~17(추자도), 5.20~22(한라산 철쭉제), 5.28~30, 6.3~5, 6.12~15(추자도)  
문의 : (064)756-6009, (02)773-1463

**인간조건과 영적여정(두려움이 사랑을 만날 때)**  
· 5.18(목)~21(일) · 논산 씨든영성의집  
강사 : 김준수 수녀(사랑의씨든수녀회)  
문의 : (02)421-1968(한국관광지원단)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7.26(수)~8.7(월) / 465만원  
· 서유럽(이태리, 루르드, 보렝, 바느, 독일)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프란치스코회 42차 이태리 순례**  
· 10.18(수)~29(일) / 문의 : www.terrasanta.kr  
010-5607-2046(이스라엘성지한국대표부)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13(토), 5.14(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19-1690
선한목자예수수녀회	5.13(토) 청년, 14(일) 청소년	서울 길음동 본원	010-9900-5811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5.14(일) 14:00	부산 본원	010-9113-4997
말씀의성모명보수녀회	5.14(일) 14:00	과천 본원	010-8920-9423

<p><b>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⑥</b> <b>해의 취업의 선두주자인 치기공학과</b> www.cup.ac.kr</p>	<p><b>부산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b> 미숙아 치료/고위험신생아 치료/갇겨루 케어 최신의 인공호흡기, 개방형 보육기 다수 보유 의사가 상주하여 미숙아 출산시 최상의 조건으로 케어 가능 문의 : 933-7333(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b>가톨릭선원</b> <small>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small> 신수희 율리아 성화 개인전 <b>‘사랑, 사랑이여라’</b> 일시. 5/8(월)~19(금) (Open : 5/13(토) 18:00) 장소. 가톨릭센터 마음빌갤러리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b>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b>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b>토플전문 학원 (유학준비)</b> 해운대신시가지(장산역 3번) 010-3206-0609</p>	<p>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b>일산자동차매상사</b> 대표 조남철(네베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b>오두종성형외과</b>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와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b>(주)석경</b> 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채 영(매가), 박승국(라자로) 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p>
<p>50년 전통 <b>명신당</b>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법인점 맞은편</p>	<p><b>이삿집은 우리트렌스로</b> 582-1414 582-8555 010-4042-8662 대표 :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p>	<p>재활전문 <b>수요양병원</b> 재활 · 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b>라파엘여행사</b> 5/21 크로아티아, 발칸 11일 359만원 5/29 산티아고 도보순례 13일 399만원 6/5 크로아티아, 발칸 14일 415만원 6,7월 이스라엘 성지순례 문의바랍니다. 성지순례 (02)778-8565</p>	<p><b>독일보청기</b>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월혁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p>